

2017년 5월 22일, 조천읍 대흘2리 대흘2리노인회관, 강수경 조사.
김영옥(여, 1929년생, 조천읍 대흘2리)

- 줄거리: 함덕에 살 때 잔치집에 있는데 날이 흐리더니 비가 올 것 같아서 땔감을 잘 덮으러 밭에 갔다. 땔감을 잘 덮으는데 불이 꽉 비추었다. 그래도 땔감을 잘 덮고 집으로 오는데 불이 비추고 소리는 살랑살랑 났다. 그렇게 하면서 집에까지 왔는데 땀이 났다. 그 불이 반짝하는 게 도체빗불이었다.

[제보자] 주막동산이엔 헌 디 도체비 난덴 자꾸 얘긴 헤도 우리 눈으로는 안 봐반. 주막동산이엔 헌 디 요디 영 동산 잇수다. 이 곱은다리. 주막동산에 도체비 난덴 자꾸 얘기해나고.

겐디 나가 함덕 살 땐 도체빌 왜 도체비를 봤냐면은 옛날 그 저 조 같아그네 엉 조칩 영 세운디. 잔칫집이 간디 막 날은 우칠 거. 비올 것 같으난 그 조칩을 눌. 잘 데명 더꺼 오젠 간디. 불이 꽉 비취와. 선허게. 그냥 이녁은 그것도 몰르고 막 그거 헷주. 그게 도체빗불이렌.

게난 그냥 그 조칩을 옛날은 집이 지엉도 오주게. 지엉 와가민 그냥 불은 바짝 비추곡이. 소리는 살랑살랑 나곡. 경 허멍 집이??지 온 디 땀이 막 나곡. 그런 기억이 훈 번 잇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조칩, 땀, 주막동산, 곰은다리, 도깨빗불, 도체빗불